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인산인해 진풍경

광복절 연휴 3일간 1만5000여명 방문… 광복 80주년 맞아 역사적 의미 되새겨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근대 역사·문화의 산교육장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근대 역사·문화의 산교육장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특히, 박물관벨트화지역과 분관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세대를 초월한 관람객이 대거 몰리는 등 테마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박물관 벨트화지역은 근대역사박물관을 비롯해 근대건축관(옛조선은행), 근대미술관(옛일본제18은행), 진포해양테마공원(위봉함), 장미갤러리이다. 박물관 분관은 3.1운동 100주년기념관, 채만식문학관,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이다.

박물관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연휴 3일간 이곳에 약 1만 5,000여 명이 방문했던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객 가운데 상당수가 가족을 동반한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민으로 파악돼 박물관의 진가가 재조명됐다. 또한 입장권을 구입하려는 대기 행렬이 이어지는 진풍경이 연출됐고 덩달아 인근 카페 등 상점들도 문전성시를 이루는 등 박물관 주변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였다.

이 같은 박물관의 대성황은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과 연휴 기간 연극, 전래놀이, 버스킹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벤트가 어우러진 철저한 사전 준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근대건축관과 근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군산의 빛, 꽃으로 물들다'란 주제로 화려하게 펼쳐진 국가유산미디어아트(구 군산세관 본관)행사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박물관은 15·16일 야간 무료 개장을 통해 관람객들이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감상할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군산시 김봉곤 문화관광국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박물관을 찾아주신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군산이 가진 근대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제1회 김병종 미술상 어린이 그림 공모전

남원시, 유아부 · 초등 저학년부 · 고학년부 3개 분야 진행

남원시에서는 어린이들의 예술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응원하기 위해 '제1회 김병종 미술상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 개최는 '생명의 화가' 김병종 작가가 고향 남원시에 다수의 작품을 기증하며 시작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이 연간 16만 명이 찾는 예술 향유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사례에서 착안했다.

올해 처음 열리는 '김병종미술상 어린이 공모전'이 아직은 어린 수많은 '생명의 화가'들에게 창작자로서의 영감을 주어 제2의 김병종 작가가 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전은 유아부(5세~7세), 초등 저학년부, 고학년부 3개의 분야로 나누어 각 1명씩 3명을 선정하고, 유아부는 100만원, 초등부는 각 150만원으로 총 4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며 선정작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콩'에 전시참가 자격은 전국의 유아 및 초등생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과 수많은 예술가를 길러낸 남원에 가치를 담아 '생명'과 '자연'을 주제로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 남원시 누리집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남원시 문화예술과 전시미술팀(063-620-5788)으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난 16일 독일 태권도단이 남원시를 방문해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체험하며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독일 태권도단, 남원서 문화관광 자원 체험

남원시는 지난 16일 독일 태권도단이 시를 방문해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체험하며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현재 독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표락선 관장이 유년 시절을 남원에서 보낸 인연으로 매년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도 베를린·브란덴부르크·브라운슈바이크 등지의 청년 태권도인들과 함께 남원을 찾았다.

이번 1박 2일 일정은 시립 김병종 미술관 관람을 시작으로, 남원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피오리움 미디어아트 체험, 광한루원에서의 한복 체험, 청아원 국악상설공연 창극 '소녀춘향' 관람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피오리움의 미디어아트 전시와 최근 개관한 청아원 창극 공연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색다른 경험으로, 문화예술과 첨단기술,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남원의 매력을 알리기에 충분했다.

독일 태권도단 관계자는 "남원시의 다채로운 매력과 따뜻한 환대에 감동을 받았다며,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우리 모두 '다함께 Single벙글'"

전북여성가족재단, 1인가구 고립 · 은둔 예방 프로그램 본격 추진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오는 22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2025 다함께 Single벙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약 782만 9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1인가구가 주요 가구 유형으로 자리잡는 가운데, 고립·우울·은둔 등 사회적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이에 재단은 혼자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생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1강 혼자서도 쉽게 만드는 한 끼 요리, △2강 DIY 셀프 집수리, △3강 여성 호신술 교육, △4강 정리정돈 클래스, △5강 MBTI 향수 만들기, △6강 마크라메 수경화분 클래스 등이다.

전문강사와 함께 전과정 무료로 진행되며 총 6회, 회당 인원은 20명 이내 소규모로 이뤄진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네이버 폼)를 통해 할 수 있다. 도내에 거주하는 1인가구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인 가구 증명서류 제출이 필수다.

전정희 원장은 "1인가구가 고립되지 않고 주변과 소통하며, 실생활에서 유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과 관심사를 고려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부안청자박물관, 부안 상감청자 심화전수 프로그램 운영

부안청자박물관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도예전공 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추천받은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안 상감청자 심화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유산인 부안 상감청자 기법을 심화 전승하고, 이를 통해 청년도예가를 육성하며, 전문 도자인력 양성을 바탕으로 부안 도자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화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되며, 참가 학생들은 물레 성형, 상감기법 실습, 전통 도구 조각칼 제작법 등 전 과정에 걸쳐 부안 상감청자의 전통을 직접 배웠다.

특히, 이번 전수 과정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자 이은규 사기장이 지도교수로 참여하고, 도예가 김문식·강의석 이수자들이 함께 강사로 나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기술을 전수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